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 효 순¹⁾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혼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후,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 자녀들은 재혼가족의 적응과정에서 청소년 자녀가 인지하는 문제점, 위기를 극복해나고자 하는 대처자원과 관계의 변화라는 3개의 핵심범주와 14개의 하위범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청소년 자녀는 재혼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관계에서 갈등과 혼란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처자원을 바탕으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의 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는 재혼가족 청소년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재혼가족연구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또한 청소년 자녀의 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복지적인 지식과 개입전략을 찾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어 : 재혼가족 자녀, 청소년기, 적응과정, 질적 사례연구방법, 탐색적 연구

1) 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E-mail : meri9657@unitel.co.kr)

I. 서 론

최근 인구학적 조사에 의하면 가족변화의 한 측면으로서 이혼과 재혼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통계청(2006)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결혼한 8쌍 중 1쌍은 남녀 모두 재혼으로 1993년의 20쌍 중 1쌍인 비율이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 이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이혼 선진국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지난 수 십 년간 재혼가족의 수는 놀라운 정도로 증가하여, 1986년의 경우 이혼한 남성의 79%와 이혼한 여성의 75%가 재혼하였으며, 그들의 67%가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였다. 1991년에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20% 이상이 재혼가족이었다(Bray & Berger, 199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결혼 가운데 25.2%가 재혼이고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44.1세, 여자 39.6세로 나타나 중년기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재혼율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재혼율, 역시 증가하고 있어 재혼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이혼부부들의 70%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어 유자녀 재혼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자녀 재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는 양육, 훈육과 관련된 어려움, 부모역할 기대의 불일치 등 새로이 형성된 가족관계에 있어 많은 갈등을 겪는 존재로 간주된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속한다면 재혼가족간의 적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달 주기 중 흔히 ‘심리적 격동기’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인 변화가 큰 폭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들에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요구되며,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재혼가족 자녀의 발달단계가 가족의 생활주기 단계와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특히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부모-자녀 간 갈등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Crosbie-Burnett & Giles-Sims, 1994; Hobart, 1991; Stoll, Arnaut, Fromme, & Felker-Thayer, 2005). 따라서 재혼가족 자녀의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비행 등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재혼가족에서 적응을 잘 하던 자녀도 청소년기가 되면 친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아로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나며(Walsh, 1992), 자녀의 발달단계 상에서 볼 때도 청소년기는 계부모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기로 나타난다. 특히 사춘기 내내 강조되는 자율성과 독립심은 재혼가족의 적응 욕구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며 가족 응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Fine & Kurdek, 1992),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기 자녀는 심각한 적응문제를 겪게 된다.

양부모 핵가족, 이혼가족 및 재혼가족 자녀들의 적응 상 문제점을 상호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혼가족의 청소년자녀들은 핵가족이나 편모가족의 자녀들보다 정서적으로 행동상으로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한층 많은 어려움을 지닌다고 보고된다(Fine, Donnelly, & Voydandoff, 1993; Zimiles & Lee, 1992). 재혼가족 자녀의 적응은 초기 청소년기 이전에서는 핵가족 자녀의 적응과 유사하다고 보고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재혼가족원 중에서도 적

응에 따른 문제들을 가장 많이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Green & Anderson, 1998; Rodgers & Rose, 2002; Stoll et al., 2005)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재혼가족의 청소년 자녀는 발달단계 상, 또한 재혼가족이라는 복잡한 가족구조 속에서 대처하기 힘든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재혼가족 자녀에 대한 연구결과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즉 재혼가족의 적응이나 청소년자녀와 관련한 연구로는 이혼한 재혼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한경혜, 1998),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 부모관계에 대한 연구(임춘희, 2006), 재혼가족의 자녀에 관한 연구(도미향·박은전, 1997; 현은민, 2003) 및 두 개의 양적 연구(김효순, 2006; 윤주애, 2002)가 있을 뿐이다. 한경혜(1998)의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에 대한 서구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주요 쟁점 및 적응관련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도미향과 박은전(1997) 그리고 현은민(2003)의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의 아동에 관한 서구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적응문제를 고찰하였으며 재혼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을 제시하였다. 임춘희(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녀들이 인지하는 친부모나 새부모에 대한 가족관계의 고정관념 및 재혼가족 신화를 검토하였다. 윤주애(2002)의 연구는 재혼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73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는데 계모가족보다는 계부가족일 때와 2년 이하의 재혼기간일 때 자녀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표본의 수가 너무 적어 표본의 대표성 문제로 청소년 계자녀의 적응경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

효순(2006)의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역할긴장요인이 재혼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지만 그들의 적응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재혼가족 청소년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가 크게 부족하며 또한 청소년자녀가 재혼가족원 중에서도 가장 적응문제를 심각하게 겪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고찰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목적을 실현하고 또한 재혼가족 청소년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질적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적응경험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방식은 기존의 양적연구들이 통제적이고 환원적인 연구절차에서 연구의 맥락을 선택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총체적인 질적 관찰과 기술을 통해 상황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rman & Reid, 1994). 질적인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드러난다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의 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입전략을 찾는 일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천적 노력은 청소년 자녀들이 재혼가족과의 생활에서 적응적인 측면을 강화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부모의 재혼과 청소년 자녀의 적응

1. 청소년기의 특징과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

청소년기란 인간의 발달과정 중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때이며 흔히 주변인, 과도기 등으로 일컬어지며 정신적, 신체적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표갑수, 1986: 59). 즉 생리적 발육과정과 인격형성 과정에 있어 그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비타협적이고 현실도피와 관념세계로의 몰입경향이 현저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지위나 역할, 가치관 등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가정 또한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므로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갈등이나 형제·자매와의 갈등 등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자아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면서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 속의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에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주어진 사회여건 속에서 잘 적응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고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할 수 있고, 문제행동의 발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이 없고, 불화가 잦고, 가족 간의 결속력이 없을 때 자녀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가출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된다(이길홍, 1990).

이렇듯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성장이라는 과

제만으로도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재혼가족의 자녀들은 거기에 더해서 가족 내의 혼란을 함께 겪어지게 되어 부담이 과중하며, 심각할 경우 탈선이나 비행 혹은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안혜연, 1999). 재혼이 부모에게는 재혼 당사자로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상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재혼가족의 자녀는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가족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혼 당사자들과는 또 다른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2.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

대부분의 서구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양부모 핵가족(intact family)의 자녀들보다 더 많은 적응상의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혼가족의 자녀들과는 유사한 적응수준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Green & Anderson, 1998; Rodgers & Rose, 2002). 퀵과 뉴만(Quick & Newman, 1995)은 2년이 재혼가족 청소년 계자녀의 적응과 스트레스 수준 완화의 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혼기간이 약 2년 정도 지나면 재혼가족의 일상의 구조화가 안정된다고 보는 반면, 학자에 따라서는 12년까지 걸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Walsh, 1992).

재혼가족 자녀의 적응과 그 적응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변수들이 대다수 재혼가족 연구의 중심이 되어왔다. 도미향과 박인전(1997)은 ‘적응’ 개념을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 그

리고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경혜(1998)는 서구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혼가족의 자녀의 '적응'을 심리적 적응으로 보았으며 자존감, 자아개념, 주관적 안녕 등으로 측정되거나, 학업성취도나 문제행동 등의 행동결과(outcome)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싱글턴-윈스턴(Singleton-Winston, 2003)은 재혼가족 자녀의 '적응'을 인지적 수행능력(cognitive competence), 심리사회적 적응(psycho-social adjustment), 행동상의 적응(behavioral outcomes) 등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인지적 수행능력이란 IQ점수, 학업상의 어려움, 학교에 대한 애착과 학업성적을 포함한다. 재혼가족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을 살펴보면, IQ를 통제했을 때 재혼가족 자녀들은 친부모가정 자녀들에 비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Hetherington, 1999). 심리사회적 적응이란 인간이 타인 및 사회와 사고, 감정, 행동, 개인의 정체감과 존중감, 그리고 자아실현까지 포함하며 개인의 사회·환경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적 안정과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의 과정이라는 특성을 내포한다.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로는 자아 존중감, 외현화, 우울, 안녕감, 생활 스트레스, 불안 및 또래 관계에서의 인기와 대인관계를 들 수 있다(Anderson & Green, 1999; Bray & Berger, 1993; Rodgers & Rose, 2002). 칼터(Kalter, 1977)의 연구에 의하면 재혼가족 자녀는 우울과 분노가 교차하면서 상승 작용하는 위험한 증세를 보였다. 다른 연구들(Bray & Berger, 1993; Lutz, 1983)에서도 재혼가족 자녀는 상당히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였으며, 스트레스와 분노감정이 자주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재혼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자녀의 경우 조기 개입하지 않으면 성인기의 정신건강을 위협하여 정신증(psychosis)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Kalter, 1977). 행동상의 적응문제는 공격성, 학교중퇴, 마약복용, 사회적 능력, 가출과 성관계와 같은 문제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파악된다(Hetherington, 1999). 재혼가족 자녀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는 자녀들이 보이는 행동상의 적응 문제이다. 재혼가족 자녀들은 친부모 가정의 자녀들보다 공격성, 행동장애와 같은 적응 문제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Hetherington, Cox & Cox, 1985).

이렇듯 서구의 연구에 의하면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비이혼가족 자녀에 비해서 심리사회적 적응, 행동상의 문제나 학업성취도 등에서 많은 적응상의 문제들을 표출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혼가족 자녀들에 관한 연구도 일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혼가족의 삶 속에서 어떠한 적응 경험을 거치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거의 알려진 게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 자녀의 '적응' 개념을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가 자신이 처한 가족 내 혹은 가족외적인 환경에서 자신과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그들이 겪는 적응상의 경험 과정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Stollet et al., 2005; Crosbie-Burnett & Giles-Sims, 1994; Hobart, 1991)를 토대로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문제들이 작성되었다. 즉 부모가 재혼한 이후의 생활은 어떠하였으며 재혼가족 생활에서 특별하게 경험하는 것, 어려움이나 갈등상황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이 재혼가족 생활에서 어떻게 적응하게 되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심층적 면담을 이용한 질적인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사례연구가 어떤 현상 또는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을 때 유용하다(Guba & Lincoln, 1981). Bromley(1986)는 사례연구를 통해 특정 실재(entity)의 묘사 및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Yin(1994)은 질적 사례연구에 대해 ‘현상과 맥락 간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실제 생활 맥락(real-life context) 내에서 그 당시의 현상을 연구’하는 경험적 연구이며 특히 “왜”라는 질문 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위해 준비된 질문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가 재혼한 이후의 생활은 어떠한가? ② 재혼가족 생활에서 특별하게 경험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어려움이나 갈등상황은 어떤 것들인가? ③ 재혼가족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응하게 되었나? 등이었다. 특히 재혼가족 자녀의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대처자원과 지지체계, 가족관계의 변화 등에 관한 부수적인 질문들이 추가되었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연구 대상자들을 소개받았으며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학교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도 연구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하여 충분한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진행 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면담시작 전에 연구자의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를 구했으며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자료의 정확한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면담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곳으로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주로 학교 상담실에서 약 1시간 30분정도 씩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가 학교에서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학교 인근의 조용한 제과점이나 간식당 등을 면접장소로 활용하였다.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면담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내용은 해당 학생의 양해 하에 휴대용 녹음

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여 다음 면담 시에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었으며 면담에서 확실하지 않거나 불일치했던 내용을 추가로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연구자가 준비해간 필기도구(약 7000원 상당)를 선물로 주었다.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나 전자메일을 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때마다 연구 참여자와 다시 연락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연구자는 면담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 재혼가족은 전혼에서 자녀를 데리고 온 유자녀 재혼가족을 의미하며 청소년 자녀는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것은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계부모와의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선행연구결과(Crosbie-Burnett & Giles-Sims, 1994; Hetherington et al., 1985)를 따른 것이다.

연구대상인 중·고등학생¹⁾은 연구자가 학교 교사들로부터 소개받아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면접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계부 혹은 계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친형제가 있었으며 종교는 교회와 성당에 나가는 학생들이 많았다. 부모의 재혼유형은 사례6과 사례7은 사별이고 그 외는 이혼 후 재혼이었으며 친부모와는 모두 연락을 두절하고 지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헤어진 친부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생들로부터 별거하고 있는 친부모에 대한 얘기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확인과정을 거쳤으며, 예외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검토하였다. 특히 연구자의 관점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연구 참여자의 기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재혼가족 청소년의 문제에 관하여 학교교사와 가족학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함께 구하였다.

IV. 자료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사례들에 대한 면담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주제와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²⁾

1) 학생들의 부모는 학교 선생님에게도 재혼사실을 숨기는 편이었으며 학생들도 친한 친구 이외에는 부모의 재혼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연구대상자들을 접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 Yin(1994)에 의하면 사례연구의 증거분석은 사례 연구에서 가장 발전이 덜된 부분이자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통계분석과는 달리 확립된 공식이 거의 없고 전략과 기술에 대한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특징	성별	학년	재혼기간	종교	부모의 재혼유형	형제관계	부모 유형
사례 1	여	중 3	3년	기독교	이혼 후 재혼	친형제(친언니 1 남동생 1)	母 재혼(계부와 생활)
사례 2	여	중 3	8년	기독교	이혼 후 재혼	친형제 형제(모두 출가)	母 재혼(계부와 생활)
사례 3	여	중 2	5년	기독교	이혼 후 재혼	친형제(여동생 1)	父 재혼(계모와 생활)
사례 4	남	고 1	6년	천주교	이혼 후 재혼	친형제(형 1) 형제자매(여동생 1 남동생 1)	母 재혼(계부와 생활)
사례 5	여	고 3	10년	종교없음	이혼 후 재혼	친형제(남동생 1)	父 재혼(계모와 생활)
사례 6	남	중 3	10년	종교없음	사별 후 재혼	형제(남동생 1)	父 재혼(계모와 생활)
사례 7	여	고 2	3년	기독교	사별 후 재혼	친동생(남동생 1)	母 재혼(계부와 생활)
사례 8	남	중 3	5년	종교없음	이혼 후 재혼	친형제(여동생 1)	父 재혼(계모와 생활)
사례 9	여	고 2	2년	천주교	이혼 후 재혼	형제 없음	父 재혼(계모와 생활)

이러한 범주화를 통하여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들을 모두 14개의 하위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14개의 하위범주는 다시 재혼가족 청소년자녀가 인지하는 문제점,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대처자원, 관계의 변화 등 3개의 핵심범주로 요약되었다.

1. 청소년 자녀가 느끼는 문제점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인지하는 문제점으로는 부모에 대한 원망,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 이사로 인한 환경적 변화, 가족 간 호칭문제, 일상생활과 훈육과정에서의 차별, 가출과 자살생각, 대화단절과 소외감,

정의가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엄밀한 사고, 충분한 증거의 제시 및 대안적인 해석에 대한 면밀한 고찰에 따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시와 무관심, 성적인 접촉의 두려움, 재혼사실을 비밀로 함 등이다. 3개의 핵심범주 가운데서도 청소년 자녀들이 인지하는 문제점 범주는 모두 14개의 하위범주들을 포함하고 있어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겪는 갈등적 심리상태가 상당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의논도 없이 재혼한 부모를 원망함

재혼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은 가족체계에 끼여 참여하는 쪽은 아닐 것이다. 부모들은 새로운 결혼관계에 대해 자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찬성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 부모와의 삶에서 자녀들 대부분은 언젠가는 그들이 친부모와 재결합하여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가정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에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재혼가족체계의 적응을 발전시키려는 새 부모의 노력에 저항하면

서 재혼가족생활에서의 삶을 더욱 어렵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사례1, 사례5 및 사례 8의 경우를 보면 청소년 자녀들은 사전에 자신들과 의논도 없이 결혼한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였으며 그 결과 자신들의 존재조차 하찮게 여겨진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혼가족 자녀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후 한부모 가정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닌 부모-자녀체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부모의 재혼 사실에 대해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재혼하려는 부모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춘기 자녀에게 재혼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 위한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새로운 가족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다.

나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재혼한 부모가 가끔 원망스러워요.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그래서 그 사람(계부)을 보면 내 자신이 하찮게 여겨지기도 해요(사례 1).

엄마가 왜 재혼해야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재혼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못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처음에는 참 서운했어요(사례 5).

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는지 아빠는 재혼에 대해 아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가끔 아파하고만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8).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

친부모가 실제 상황이나 기억 속에 존재함으로써 비록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서로 접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상 친부모가 살아 있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친부모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접촉을 자주 하지 않는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들은 친부모와 계부모를 비교하기도 하면서 친부모에 대한 상실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Luts(1983)의 연구에서도 12세에서 19세 사이의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중의 하나로 따로 사는 부모를 만날 수 없을 때를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함께 살고 있는 친부모가 헤어져 살고 있는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는 재혼가족 자녀 자신들의 심정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디스트레스의 근원이 됨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는 달리 이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친부나 친모와의 만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상실감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된 뒤로 요즘은 가끔 돌아가신 엄마 사진을 들여다보곤 해요. 기억은 잘 안나지만 전보다 더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아빠가 새엄마하고 잘 지내니까 죽은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사례 6).

전에는 몰랐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자주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춘기 짝아요. 엄마한테만 할 얘기가 많은데---. 아빠는 엄마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 해 주지만 (아빠 몰래) 가끔 연락이 오곤 했거든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은 거의 연락이 안와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친엄마, 아빠하고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사례 9).

이사로 인한 환경적인 변화

재혼을 통해 자녀들은 지역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즉 부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하고 새로운 친구, 새로운 이웃, 새로운 학교에 가야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일들 역시 자녀에게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옛날 친구들이 그리워요. 개네들한테는 뭐든지 솔직하게 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가리면서 말해요(사례 5).

전에 살던 곳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곳에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사례 8).

가족 간 호칭문제

친부모의 재혼 배우자를 계부나 계모라고 부르는 문제는 단순히 호칭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을 부모 혹은 한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가족경계의 인식 문제로 볼 수 있다. 초혼가족의 가족구성원들은 생물학

적, 법적으로 정의되고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지만, 재혼가족에서는 집속빈도와 의지에 의해 경계가 주관적으로 정의된다. 재혼가족은 경계설정 과정에서 다른 가족구성원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제외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투명한 경계들이 가족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Furstenberg, 1987). 따라서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재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부모를 부모의 범주에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갈등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자녀가 비자발적으로 재혼가족의 일부가 되었을 경우 가족범주의 모호성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자녀는 계부모에게 심리적 거리를 둬으로써 친부모에게 대해 느끼는 양가적 감정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고,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분노·실망·상처 등을 계부모 탓으로 돌리거나 계부모를 향하여 발산함으로써 재혼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새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고 했지만 나는 모두 싫었어요.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생각만 들어서 짜증이 나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직장 나가는 엄마를 대신해서 청소도 하고 집안 일 하라고 매일 저를 야단쳤어요. 그래서 저의 성격을 개조했어요. 3년 동안 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매사에 의욕이 없고 명랑하던 성격이 없어지고--- (사례 1).

집에는 들어가기도 싫어요. 그나마 친동생이 있긴 한데 그 애하고도 별로 애

기 안해요. 저는 집에 가서 그냥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싫어요(사례 3).

일상생활이나 훈육과정에서의 차별

많은 경우 부모의 재혼 선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입장인 자녀들은 계부모 혹은 친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관계 등에서 혼란을 겪으며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형제자매 관계의 경우, 의붓 형제자매가 형성되거나 이복·의붓 형제가 존재할 때 새로운 재혼가족으로서의 가족규칙을 수립하고 훈육문제가 발생하면서 자녀는 무관심, 차별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재혼가족의 친형제자매 관계는 출생순서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반면 이복·의붓 형제와 같은 재혼가족 형제 관계에서는 순서가 분명치 않아 형제들간에 갈등과 마찰의 여지가 크고 이는 재혼가족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맺게 되는 이복·의붓 형제관계를 비롯한 새로운 가족관계는 기존 서열의 변화, 가족크기의 변화, 친부모와 계부모 사이의 애정에 대한 갈등 등에 있어서 경쟁을 가져오게 되어 재혼가족 자녀들이 혼란이나 분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들의 혼란이나 분노는 일상생활이나 훈육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느낄 때 더욱 분명해지고 증폭되기도 한다.

또한 2년 정도 지나면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알려져 있지만(Quick & Newman, 1995), 사례 6의 경우처럼 재혼가족 자녀가 어린 나이에 재혼가족에 진입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족체계에 적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춘기

라는 생애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살 차이나는 의붓오빠가 자주 때리고 못살게 굴어요. 컴퓨터도 못하게 하고요. 그래도 계부는 모르는 척 해요. 지금은 돈 벌러 가서 같이 안 살아요. 그 의붓오빠를 안보니까 살 것 같아요(사례 2).

새아버지는 제가 성적이 오르면 더 미워하죠. 제가 한때 가출했었는데 그 때는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후 제가 마음먹고 공부를 하니까--- 친자식과 비교돼서 그런지 저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더군요, 그쪽 애들은 아예 공부하고는 담쌓고 살아요. 전 개네들 정말 싫어요. 자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집이건 학교에서건 항상 사고를 쳐서 우리 엄마가 매번 학교에 불러 다니잖아요. 그럴 때면 저도 속상하죠(사례 4).

전에 새엄마에게 용돈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기분만 나빠져서 다시는 달라는 말 안 해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어린동생(의붓형제)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 애만 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은 아빠가 알아서 주셔요(사례 6).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크면서 보니까 새엄마가 나를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심부름도 나한테만 시키고

---. 이제 내가 사춘기잖아요. 그런데 내 기분이 어떤지 알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점점 반항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집에서 계모하고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집에도 늦게 들어가요. 학원에 있다가 끝나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가요(사례 6).

가출충동과 자살생각

청소년기는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흔히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갈등을 야기 시키며,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강한 충동성과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Adams, Overholser & Spirito, 1994). 재혼가족 자녀들은 계부모와 이복 혹은 의붓 형제와의 관계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겪게 될 때 가출이나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가출충동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들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가족으로부터의 학대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등으로 밝혀진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와의 접촉이 적을수록 혹은 정서적 학대가 있을 때 자녀의 가출충동이 높았으며(정혜경, 2001; Kaplan & Maldaver, 1993), 부모나 양육자의 양육태도,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가정불화 등의 가정적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정철순·임수빈·고효진, 2001)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친언니는 새아버지가 하도 괴롭혀서 엄마가 재혼한 직후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서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다고 해요. 엄마하고 따로 연락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도 새아버지 앞에서 언니애기 안하니까---. 언니는 작년에 결혼했는데 연락처도 안 가르쳐 줘요. 일 년에 서너 번 저한테 연락해요(사례 1).

저는 자살도 생각해봤어요. 매사가 우울하고 새아버지가 들락날락 하는 걸 보면 우리 아버지는 복도 없지---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싶었어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사례 7)

무시와 무관심 및 대화단절에서 오는 소외감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은 그들이 느끼는 갈등과 스트레스로 가족관계에서의 무관심과 대화단절에서 오는 소외감을 언급하였다. 부모-자녀간의 배려와 관심을 통한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견대립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재혼가족이 형성되면서 부모-자녀간에 무관심해지고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사춘기 자녀는 그 시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재혼가족에서는 핵가족과는 달리 부모-자녀 체계의 유대가 부부체계 유대보다 먼저 존재했다. 즉 부모가 재혼하기 전 한부모 시기부터 이어진 부모-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더 오래된 상태이어서 친부모나 계부모와 대화단절이 이어질 경우 재혼가족체

계에 진입한 청소년 자녀는 계부모 체계에 의해 억지로 끌려 다니는 느낌을 갖는단지 아니면 친부모가 새 배우자와 가까워지면서 자신에게는 무관심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가족 체계에서 배제되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새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는 날에도 밥은 각자 차려먹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예요. 새아버지도 혼자 식사하면서 저를 안 불러요. 그런데 제가 새아버지 식사 준비 안했다고 나중에 엄마한테 일러서 나만 혼나요(사례 1).

요새는 아예 대꾸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는지 알지만 하기 싫어요. 새엄마가 계속 뭐라고 해도 저는 무시하고 살아요. 저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저녁에는 옷 갈아입고 친구네 가서 놀다 늦게 와요. 부모님은 맞벌이하시니까 늦게 들어오세요(사례 9).

새아버지는 저한테 이래라저래라 하고 애기 안 해요. 잔소리도 안하고요. 컴퓨터 하루종일해도 새아버지는 야단 안쳐요. 그런데 엄마한테 걸리면---.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만 안혼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만 들어오면 얼른 불도 끄고 컴퓨터도 꺼요. 새아버지가 들어오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새아버지는 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대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사례 2).

새아버지는 자기주장만 하세요. 제 입

장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명령하니까 짜증만 나죠. 엄마도 더 이상은 야단 안쳐요. 자기도 찢리니까 나한테 야단 못 치죠(사례 1).

나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새 엄마가 나하고는 애기를 안 하거든요. 나도 관심도 없어요. 집에도 일부러 늦게 들어오려고 친구네 집에 있다가 와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기는 하죠(사례 8).

성적인 접촉에 대한 두려움

재혼으로 인해 생물학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청소년 자녀와 새 부모가 한 가족을 이루면서 성적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Crosbie-Burnett, 1989; Lutz, 1983). 이는 재혼가족에서 딸들이 아들보다 더 많은 적응 상의 스트레스를 보고하며 계부와 부정적인 관계를 보고하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끔은 새 아빠하고만 있을 때가 부담스러워요. 엄마가 교회에 가서 늦게 들어올 때는 무서우니까 아빠하고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새 아빠와 안 좋은 일(육체적 관계)이 생길까봐 처음에는 무척 두려웠어요(사례 5).

재혼사실을 비밀로 함

재혼율의 증가, 재혼유형의 증가, 특히 재혼율의 여성우위 현상 등은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관념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재혼가족을 ‘문제가족’으로 취

급하고 초혼 핵가족 중심주의라는 가족에 대한 단일한 기준만을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재혼가족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자녀뿐만 아니라 재혼가족원 모두가 사회로부터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시선을 받을까봐 재혼 사실을 숨기는데서 알 수 있다.

엄마는 재혼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 안 해요, 교회 목사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다 돌아가시고 새아버지 친척, 친구들은 왕래를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을 집에 안 데리고 왔었어요(사례 1).

담임선생님은 우리 엄마가 새엄마인걸 아세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의 숨겨요. 철저히하세요. 나도 친구들한테 말 안 해요. 그래도 친구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요(사례 6).

2. 위기를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대처자원

재혼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은 새로이 형성된 가족관계에서 적응해나가는 동안 상당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처자원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대처자원으로는 종교에 의지하기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종교에 의지하기

재혼가족 청소년의 경우 종교에 의미를 두

면서 재혼가족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탄력성(resilience)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족들의 지지도 없고 고립무원이라는 생각이 들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종교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를 찾는다는 것이다.

저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새아버지나 엄마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사례 1).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책을 읽거나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걸 느껴요(사례 5).

사회적 지지

청소년 자녀는 재혼가족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라는 대처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지지망을 가진 사람은 지지망 구성원으로부터 규칙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내에 통합과 소속감, 안전감 그리고 긍정적인 애정과 복지감을 제공받게 된다(Cohen & Willis, 1983). 즉 사회적 지지는 친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받는 자원으로서,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해준다. 사회적 지지는 예기치 못한 생활의 변화에 대

한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평형을 이루게 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특히 청소년 자녀에게 친구관계의 우정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급증하면서 친구관계를 중요시한다. 친구는 개인적인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막역한 사이이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협력자이자 위기 시에는 정신적 지원자 중의 하나이자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의 하나이다. 또래친구 외에도 학교나 학원교사들이 10대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지지적인 힘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는 제 2의 가정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삶의 장소이며, 선생님은 청소년의 지지, 성숙 및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믿을 만한 친구의 존재, 부모미외의 가까운 성인과의 관계 등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서구의 연구결과(Hetherington, 1999; Hetherington et al., 1985)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는 다 얘기해요. (친구)는 말수가 별로 없고 입이 무거워서 (우리 엄마의 재혼사실을) 제가 다 얘기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친하지는 않아도 어떤 애 부모가 재혼 했는지 다 알아요. 우리끼리는 가끔 그런 얘기(부모재혼) 터놓고 해요. 그러면 속히 후련해요(사례 5).

저는 담임 선생님이 참 좋아요. 학교선

생님도 우리 집 사정을 알아서 그런지 좋아요. 저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의지가 돼요. 제가 지금 전에 가출할 때 어울리던 나쁜 친구들을 안 만나는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사례 9).

저는 상담 선생님에게 다 얘기해요. 고등학교 와서 좋은 점은 상담 선생님하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하기 어려운 얘기도 다 할 수 있거든요(사례 5).

3. 관계의 변화

재혼가족 청소년자녀는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살핌과 지지나 형제간의 우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혼가족이 그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측면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자녀가 친부모뿐만 아니라 계부모에 의해서도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애, 가족 간의 애정과 지지를 받는 느낌

사례 5와 사례 6의 경우를 보면 친부와 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찾았다든지 의붓동생이지만 친형제처럼 애정을 주고받는 가족관계가 사춘기의 재혼가족 자녀에게는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남동생은 저를 친누나처럼 잘 따라요. 그래서 새엄마 대신에 제가 돌봐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공부하느라 바빠서 시

간이 별로 없어요(사례 5).

저는 속상한 일 있으면 아빠하고 삼겹살 먹으러 가서 다 얘기해요. 그러면 새엄마한테 서운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풀려요. 한 동안은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운했는데 제가 사춘기 인걸 아셨는지 아빠도 저한테 무척 관심을 쏟아요. 저는 그런 아빠가 있어서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사례 6).

지금 새 아빠는 정말 친아빠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대학가는 사람이 꼭 나와야 한다고 나보고 꼭 대학가야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래요. 용돈도 많이 주시고 ---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나도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아무튼 사이 좋게 지내려고 노력해요(사례 7).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됨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비록 지금은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요리사나 선교사, 상담가가 되어 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는 밝은 미래를 꿈꾸었다.

저는 나중에 신학자나 목사 아니면 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나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사례 1).

나는 빨리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알아서 만들고 돈도 벌잖아요(사례 6).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처럼 복잡한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기억이나 내 경험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사례 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과 적응과정을 파악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9명의 중·고등학생들을 소개받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는 가족관계에서 인지하는 문제점, 위기를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대처자원, 관계의 변화라는 3개의 범주와 14개의 하위범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자녀들이 상실감과 갈등 및 스트레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재혼가족의 삶 속에서 청소년 자녀는 자살생각이나 가출충동을 느낄 정도로 크나큰 상실감과 갈등 및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청소년 자녀는 재혼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체계에 진입하면서 의논도 없이 재혼한 부모를 원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함께 지내지 못하는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 이사로 인한 환경적인 변화, 가족 간의 호칭 문제, 일상생활과 훈육과정에서의 차별, 가출충동과 자살생각, 무시와 무관심 및 대화단절

에서 오는 소외감, 성적인 접촉에 대한 두려움 및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재혼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는 불안한 심리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혼가족 자녀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고 감소된 친밀감으로 인해 분개하거나 질투를 느낀다. 만나지 못하는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계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친부모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충성심 갈등을 겪기도 한다. 재혼가족 자녀는 주거환경이 변하고 가족관계, 규칙과 기대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따른 혼란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훈육과정에서의 차별은 한창 성장하는 사춘기 시기의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며 재혼가족체계의 적응과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가족원들은 재혼사실을 숨기면서 친구들이나 주위 이웃들과도 소원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혼가족을 둘러싼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재혼과 관련된 대표적인 고정관념의 하나인 ‘사악한 계모 신화’가 있는데 계모를 비정상적인 인물로 간주하는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혼가족을 편견을 가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혼가족 자녀 대부분은 가족관계를 새로이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괴로움과 불편함 및 혼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긴장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

스와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혼 결정과정에서부터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 자녀 스스로가 배려 받으며 이해받고 있어 무시되거나 소외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친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부모-자녀 간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 자녀들은 그들이 인지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러한 대처자원으로는 종교에 의지하거나 친구관계,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 등의 지지가 있었다. 즉 청소년 자녀는 종교에 의지하거나 믿을 만한 친구관계 및 선생님들의 존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지지적인 힘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재혼 시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것도 재혼가족 자녀의 성공적인 적응을 촉진하는 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혼가족이 어느 다른 가족유형처럼 고유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서 관계의 변화라는 범주를 통해서 드러났다. 즉 재혼가족은 한 부모 가족에서는 빈자리로 남아있던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라는 가족역할을 복원시켜준다. 이러한 재혼가족은 끊임없이 발달, 변화하는 가족체계로서 여러 발달과업을 완수하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와 갈등을 조정, 해결해 나가면서 가족 간의 적응기능을 완수하게 해주어 가족애와 친밀감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임춘희(200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가 친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계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재혼가족의 친부모부터 자신의 사춘기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녀 역시 계부모가 부재중인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자신의 역할 모델(role model)이 되기도 하고 관심과 보살핌 및 가족애를 느끼도록 해주어 긍정적인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혼가족의 청소년 자녀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재혼가족 청소년연구 실천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혼가족 자녀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부모의 재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 자녀는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려는 재혼가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친부모와 계부모는 재혼가족에서의 적응과정이 청소년 자녀에게는 힘든 과정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계자녀의 발달단계가 청소년기에 속하고 있으므로 단기간에 부모-자녀관계를 맺으려 한다든지 혹은 강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민주적인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같은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자녀의 갈등과 스트레스의 한 요인인 재혼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를 개선하기 위해 재혼하려는 성인들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대화로 재혼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재혼가족의 중요 가족문제에 청소년 자녀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면서 배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는 재혼이나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재혼가족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적인 측면도 가진 가족유형임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혼하려는 가족들을 위한 예비교육과 더불어 재혼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특히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대화단절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가출충동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혀졌으므로 학교 교사 외에도 학교 상담가 혹은 학교사회사업가들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자료수집에 있어서 주로 유의적 표집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의 적응체험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계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 역시 재혼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표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재혼가족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연구대상자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교와 학원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심층면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2회 면담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내용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정확한 재혼생활적응 과정의 본질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와 면담회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는 서구와는 달리 동거하지 않는 친부모에 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였으며 만나고 싶어도 규칙적으로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재혼가족 청소년자녀들이 서구와 마찬가지로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은 상당하지만 이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친부나 친모와의 만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서구의 연구결과와 일방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넷째는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 청소년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서구의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과 관련된 질문문항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서구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볼 때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성별이나 재혼기간에 따른 적응과정 차이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 자녀에 관한 본 연구는 계모가족 혹은 계부가족이라는 가족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계자녀의 적응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재혼가족 안에서의 경험을 청소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시도하였다. 즉, 청소년 계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비록 탐색적인 수준이긴 하나 청소년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적응과정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효순 (2006).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역할긴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지*, 13(2), 187-213.
- 도미향, 박인전 (1997). 계부모가족내 아동의 적응 및 복지대책의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1), 99-114
- 안혜연 (1999). 계부모가족 상담을 위한 연구.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주애 (2002).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길홍 (1990). 정신수학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동향의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11(2), 23-39.
- 임춘희 (2006).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 관계와 새 부모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연구학회지*, 13(3), 79-102.
- 정철순, 임수빈, 고효진 (2001). 청소년자 살위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4), 521-532.
- 정혜경 (2001). 청소년의 가출충동시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7(4), 483-493.
- 표갑수 (1986).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방안. *청소년*, 34, 53-67.
- 한경혜 (1998). 이혼 후 재혼가족의 부모-녀 적응.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 대회자료집*, 35-37.
- 현은민 (2003). 재혼가족의 아동: 가족적, 사회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대책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0), 101-126.

- 통계청 (2006). 인구동태통계연보.
- Adams, D., Overholser, J. C., & Spirito, A., (1994).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9, 43-48.
- Anderson, E. R. & Green, S. M. (1999). Children of stepparents and blended families. In W. K. Silverman and T. H. Ollendick(Eds.), *Developmental issues in the clinical treatment of children*(pp.57-83).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ray, J. H. & Berger, S. H. (1993). Nonresidential parent-child relationships following divorce and remarriage. In C.E. Depner & J.H.Bray(Eds). *Nonresidential parenting: New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69-86). Westport, CT: Praeger.
- Bromley, D. B. (1986). *The case-study method in psychology and related disciplines*(pp.32-33). Chichester, England: Wiley.
- Cohen, S. & Willis, H. M. (1983). Stress, social support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rosbie-Burnett, M. & Giles-Sims, J. (1994). Adolescent adjustment and stepparenting styles. *Family Relations*, 43, 394-399.
- Fine, M. A., Kurek, L. A. (1992). The adjustment of adolscents in stepfather and step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25-736.
- Fine, M. A.,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3). Relations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warmth and child well-being in step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2), 222-232.
- Furstenberg, F. F. Jr. (1987). The new extended family: The experience of parents and child after remarriage. In K. Pasley & M. Ihinger - Tallman(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Current research and theory*(pp.42-61). New York: Guilford.
- Greene, S. M. & Anderson, E. R. (1998). Observed negativity in large family systems: incidents and rea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3), 372-392.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pp.72-75). San Francisco: Jossey-Ball.
- Hetherington, E. M. (1999). Family functioning and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siblings in diverse types of families,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4(4), 26-49.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85). Long-term effect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539.
- Hobart, C. (1991). Conflict in remarriag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5, 69-86.
- Kalter, N. (1977). Children of divorce in an outpatient psychiatric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40-51.
- Kaplan, K. J. & Maldaver, M. (1993). Parental marital style and completed adolescent suicide. *Omega*, 27, 131-154.

- Lutz, P. (1983). The stepfamily: An adolescent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32, 367-375.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Quick J. R., & Newman C. J. (1995). Adolescent self-concept, family type, and conflic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ustrali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3(2), 70-77.
 - Rodgers, K. B., Rose, H. A. (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ce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4), 1024-1038.
 - Sherman, E. & Reid, W.J., (1994).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ingleton-Winston L., (2003).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adjustment in remarried and recoupled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 Stoll, B. L., Arnaut, G. L., Fromme, D. K., & Felker-Thayer, J. A., (2005). Adolescents in stepfamilies: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4(1/2), 177-189.
 - Walsh, W. M. (1992). Twenty major issues in remarriage famil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 709-715.
 - Yin, R. K. (199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2nd ed.) Thousand Oak, CA:Sage. 27-28.
 - Zimiles, H., & Lee, V. E. (1992). Adolescent family structure and education proc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314-320
- 1 차원고접수 : 2007. 10. 01.
수정 원고접수 : 2007. 11. 09.
최종 게재결정 : 2007. 11. 14.

An Exploratory Study on Adolescent Stepchildren's Adjustment Process in Stepfamilies

Hyo-Soon Kim

Dept. of Social Welfare of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adolescent children's adjustment in stepfamilies. Data were collected from nine adolescent stepchildren in Seoul, Korea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main results of this qualitative study provide the following insights about adolescent stepchildren: 1) they encounter certain difficulties; 2) they possess coping resources for overcoming crises, such as religion, support of friends and teachers, and the age of children at remarriage; and 3) they express feelings about the change in family relationship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on the subject of adolescent stepchildren were discussed.

Key words : stepfamily children, adolescence, adjustment process,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exploratory study